

# 전주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신규 2곳

### 시, 내년도 신기지구, 전당·아중·용계지구 신규 국비 6억원 확보... 현재 5개 지구 추진 중

전주시 농촌마을인 덕진구 남정동과 전미동 전당마을, 우이동 재전마을 일원의 마을하수도 정비 예산이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덕진구 남정동 일원의 신기지구와 전미동 전당마을, 우이동 재전마을 일원의 전당·아중·용계지구 등 2개 지구의 마을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년도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새만금 상류지역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마을하수도를 우·오수 분리 하수관로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는 시설계획영역과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또,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호성동, 우이동, 조촌동 일대 5개 지구에 대해서도 공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호성동 신중마을 일원은 내년 7월 완공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지난 6월 공사에 착수한 우이동 수곡마을도 공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행정절차 이행 중인 조

촌동 화신·원동·구원지구도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마을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들은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시설에 모아져 오염물질 제거 등 정화과정을 거쳐 하천에 배출되게 되며, 가정 내 악취 제거와 위생향상은 물론 새만금 수질의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농촌마을에서는 각종 건축물 신축 시 종전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신설이 필요 없게 돼 건축

비용도 절감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농촌지역 24개 지구(940톤/일, 관로 91.3km)의 마을하수도를 우·오수 분리 하수관로로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 왔다.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충당되는 만큼, 앞으로 국비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 24개 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 박형배 전주시의원, 감사패 수상

### 이전·투자기업 융합협의회서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3,4동·사진)이 전주 이전, 투자기업 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21일 전주시에 이전 및 투자기업 기업들로 구성된 전주시이전 및 투자기업 융합협의회로부터 전주이전 및 투자기업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기업들이 조기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점이 높이 평가돼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 수상한 박 의원은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 최선을 다하겠 /김민근 기자

# 선거구민에 금품제공 입후보예정자 적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와 배우자가 적발됐다.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검찰에 고발했

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A씨가 속한 모임 회원들에게 음식 등 총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일부 유권자에게 의류나 화장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삼민 기자

# 절도하다 들켜 집주인 폭행한 50대 영장

임실경찰서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40분께 임실읍의 한 주택에 금품을 훔치려 침입해 들켜 집주인 B(51)씨의 급소를 잡고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랍 등을 뒤지다 B씨와 마

주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0월 말 4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주거가 불분명하고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삼민 기자

# 상향등 쫓다며 보복운전한 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8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B씨를 자신의 차로 막은 뒤 후진해 B씨의 차를 들이받아 범퍼와 번호판을 훼손하고 B씨에게 목숨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뒤에서 오던 B씨가 상향등을 켜고 운전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데 대해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보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삼민 기자

# 택시가 승용차 충돌 후 음식점 돌진

21일 오전 10시 29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앞서가던 승용차의 앞부분과 충돌 후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A(52,여)씨가 다리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당시 음식점의 영업시간 전이라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와 승용차가 황색 점멸 등이 켜진 사이 급히 지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삼민 기자

## 김승환 교육감 1심 선고 연기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1일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선례도 많지 않아 결론을 내릴에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김 교육감 사건 재판의 선고를 내년 1월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경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교육감은 김 교육감에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인사 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순위 조작을 지시해 이는 위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인사권은 도민의 것으로 도민의 관점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해 왔고 헌법학자로서 교육자적 양심을 지켜 왔다"며 "연공서열을 우선시하고 파견자는 승진을 배제하는 관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교육감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남용하거나 그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삼민 기자



“화이팅” 전북부리산업발전위원회 2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최정호 정무부지사, 이현숙 도의원,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전북부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위촉장 전달식을 가진 후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다.

# 사라진 고준희양... ‘가족들 방임’ 주장 제기

### ‘다섯살 난 아이 혼자 집에 둔 것’ 방임... 경찰, 바로 신고했다면 찾았을 것

21일 전주시 우이동에서 사라진 고준희(5)양의 행방이 34일째 묘연한 가운데 가족들이 준희양을 방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경찰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준희양과 함께 살았던 외할머니 김모(61·여)씨는 지난달 18일 의붓손녀인 준희양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 뒤 준희양의 계모이자 자신의 딸인 이모(35·여)씨를 만나 들어왔다.

김씨와 이씨는 경찰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준희가 없었고, 준희의 아버지가 데려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

했다.

김씨와 이씨의 진술대로라면 다섯살 난 아이를 혼자 집에 둔 것이다. 이는 방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소라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이 돌볼 책임이 있는 어른이 아이를 혼자 집에 뒀다는 건 방임으로 봐야한다. 아이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도 방임이다"면서 "다른 범죄 가능성은 배제하더라도 방임을 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준희양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바

로 신고했다면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경찰 의견이다.

준희양이 11월 18일 사라졌지만 실종신고는 12월 8일에 접수됐다. 아이가 없어졌는데 21일이 지나서야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바로 신고했다면 어렵지 않게 준희양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5세 여자아이의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준희양을 발견한 시민은 국번 없이 112나 182로 신고하면 된다. /이삼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